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 에 의한 少陰人 診斷의 妥當性 研究

김상복* · 이수경*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A study on the validity to make a diagnosis of Soeumin by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Kim Sang-bok* · Lee Su-kyung* · Lee Eui-ju* · Koh Byung-hee** · Song Il-byung*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lidity to Soeum scales by QSCC II. For this study, the objects are 336 patients who were made a diagnosis of Soeumin and 422 patients of other constitutions in Oriental Medicine & Western Medicine Cooperative Health Examination Center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A systematic analysis has been mad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We made a frequency analysis in 758 examinees' questions and concluded that 35 questions, among which 30 questions were existing and 5 were new,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making a diagnosis of Soeumin by more than 10% in comparison with answer frequency of other constitutions.

2. Because confidence coefficient of 0.8011 revised Soeum scales(35) rises up as compared with that of 0.6319 existing Soeum scales(51), I think revised Soeum scales reflect trait of Soeumin well and it is liable to shorten question time by controlling questions.

3. Soeumin's discrimination probability in Soeumin was 55.4% by QSCC II, but that rises up to 64.3% by discriminant function made by revised Soeum scales. So there i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discriminant function.

4. When questions in QSCC II are divided into body-spirit(體形氣像), looks-attitude(容貌詞氣), temper- talent(性質才幹), continuous mind(恒心), avarice(心慾), physiological symptoms(生理的 證) and pathological symptoms(病理的 證), response frequency and constitution discrimination probability falls in questions about avarice and pathological symptoms.

Keywords : Constitution classification, Sasang constitution, QSCC II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 김상복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958-9233 E-mail) K701116@kornet.net

I. 緒論

東武 李濟馬는 그의 일생을 통해 ‘四象’으로 숨 췌되어지는 四象構造의 認識 體系를 完成하였으며, 이를 醫學에 適用하여 사람을 太少陰陽의 네 體質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람마다 각각의 性情의 偏差로 인하여 臟局의 大小偏差가 나타나며, 이는 ‘性質材幹’, ‘恒心’, ‘心慾’, ‘體形氣像’, ‘容貌詞氣’, ‘體質素證’ 및 ‘體質病證’³⁶⁾에서의 體質的 差等性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差等點들이 體質 鑑別의 基準들이 되어지며 이는 東武의 著書인 『東醫壽世保元』, 『格致藁』, 『東武遺稿』 및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구체적으로 敍述되어지고 있다.

四象體質鑑別에 있어 이 基準들의 統合的인 分析이 필수적인데 이에 어려움이 있어 研究者 또는 臨床家마다 四象體質鑑別 方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의 補完을 위해서 客觀的인 基準의 確立이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많은 研究들이 修行¹⁶⁾되었다.

身體的 要素를 中心으로 한 測定方法으로는 體型의 각 分節을 計測한 李¹⁷⁾와 李¹⁹⁾, 洪³⁰⁾, 李²²⁾, 許²⁶⁾ 등의 研究와 頭面部를 計測한 洪²⁸⁾²⁹⁾와 高⁴⁾, 金¹¹⁾ 등의 研究가 이루어졌다.

또 다른 유형으로 心性的 要素를 中心으로 하는 說問紙를 이용하는 方法에 대한 研究가 있는데, 이 方法은 綜合的인 情報를 包含하고 있어 多樣한 說問紙에 대한 研究⁵⁾⁹⁾¹⁰⁾¹²⁾¹⁴⁾¹⁵⁾¹⁹⁾가 이루어졌다. 이들 說問紙 중에서 妥當性의 檢證 過程을 거쳐 現在 가장 普遍的으로 使用되는 것이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이며, 이는 高²⁾등의 說問紙 方法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金⁶⁾과 李²⁴⁾가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를 구성하였고 이를 補完하여⁷⁾²³⁾를 개발된 설문지이다.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는 妥當性을 檢證하기 위한 여러 연구⁵⁾⁶⁾⁸⁾¹¹⁾²⁴⁾²⁵⁾들이 있어 왔으나 QSCC II에 관한 研究는 그 活用性에 比하여 微弱한 偏이다. 하지만 現在 體質을 鑑別을 基礎로 하는 여러 研究에 있어서 專門家에 의한 鑑別이 어려울 경우 說問調查의 方法(QSCC II)을 體質 鑑別의 基準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妥當性 研究 및 問項의

修整 및 尺度의 再檢討가 持續的으로 修行되어 QSCC II의 正確判斷率 및 使用의 便利性을 높여야 한다.

이에 본 著者는 QSCC II의 少陰人 尺度의 妥當性을 調査하기 위해 慶熙醫療院 附屬 東西綜合健康診斷센터에 1999年 11월부터 2000年 4월까지 內院한 患者 중 少陰人으로 診斷된 336例와 다른 體質로 診斷된 422例의 被檢者를 對象으로 少陰人 患者에 대해 QSCC II의 少陰人 尺度에 대한 妥當性을 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有意한 結果를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研究方法

1) 研究計劃

본 研究는 非實驗的 研究(non-experimental design)로 四象人 體質診斷의 客觀化를 爲한 說問調查 研究이다.

2)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의 概要

金⁶⁾은 1993년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에서 既存의 身體的 要素로 주로 구분되었던 體質鑑別에 反하여 精神的, 心理的 要素를 포함하여 臨床的으로 應用이 가능한 客觀的 基準를 마련하고자 說問紙形 自己報告式 檢査를 製作하여 太陰人 60.0%, 少陽人 63.6%, 少陰人 48.1%로 平均判別率 55.56%의 鑑別 正確度를 보인바 이에 1996년 既存에 QSCC의 妥當化 研究 考察에서 提示된 問題點을 補完, 修整하여 四象體質分類檢査 II(QSCC II)를 製作하여 太陰人 74.5%, 少陽人 60.6%, 少陰人 70.8%로 平均判別率 70.08%의 鑑別正確度를 보이는 水準으로 改善하였다.

QSCC II는 既存의 『東醫壽世保元』뿐만 아니라 『格致藁』 등에서도 體質을 鑑別할 수 있는 準據資料를 마련하고, 四象辨證內容說問紙(I)이나 宋의 『알기 쉬운 사상의학』³¹⁾의 自家報告形 說問紙에서 有意性이 있는 問項을 活用한 것이다.

QSCC II의 問項은 體質診斷의 基準의 特性 別로 身體的 要素에 관련된 問項, 心性的 要素에 관련된 問項과 體質素證과 體質病證에 관련된 問項으로 나눌 수 있다. 四象人의 身體的 要素는 靜的 觀察方

法人 體形氣像과 動的 觀察 方法인 容貌詞氣로 細分되어지고, 心的 要素는 다시 性質과 才幹, 恒心, 心慾 등으로 세분된다. 이에 따라 QSCCⅡ의 問項을 나누어보면 身體的 要素에 關한 8問項, 心性的 要素에 關한 80問項, 體質素證과 體質病證에 關한 24問項 및 9개의 動機歪曲 問項으로 總 121問項으로 이루어져 있다(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體形氣像 身體的 (靜的 觀察) 要素	1, 2, 3, 4, 5, 6 번 문항
容貌詞氣 (動的 觀察)	9, 12번 문항
性質才幹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7, 61, 62, 63, 64, 65, 68, 69, 70, 71, 72, 93, 101번 문항
心性的 要素	恒心 15,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6, 88, 89, 115번 문항 心慾 13, 14,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90, 91, 92, 94, 95, 96, 97, 98, 99, 100번 문항
汗	10, 106, 107, 110, 120, 121번 문항
喜溫冷	7, 8번 문항
消化狀態	102, 111, 114번 문항
大便	103, 104, 105, 109번 문항
病證	小便 108번 문항 皮膚狀態 11번 문항 眼球症狀 117, 118번 문항 胸膈病證 115, 119번 문항 虛勞 112, 113, 116번 문항
動機歪曲問項	16, 32, 39, 60, 66, 67, 73, 82, 87번 문항

3) 研究 對象

慶熙大學校 附屬 東西綜合健康診斷센터에 1999年 11월부터 2000年 4월까지 內院하여 四象體質分類 檢査(QSCCⅡ) 說問에 同意하고 體質醫學科 教授의 體質診斷을 통해 少陰人 診斷을 받은 336例와 다른 體質로 診斷된 422例, 總 758例를 對象으로 하였다.

4) 資料 分析 方法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에 의한 少陰人 尺度에 대한 妥當性을 檢討에 대한 研究하기 위해 SPSS 8.0 for Windows 분석 프로그램³²⁾을 이용하였다.

一般事項은 頻度分析을 실시하였고, 少陰人 尺度에 대한 妥當性 檢討에 대한 研究를 위해 各 問項

에 對한 頻度分析(Frequency Analysis) 및 信賴度 分析(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係數를 구하였고, 이를 土臺로 새로운 尺度를 構成하여 이를 判別分析하여 새로운 判別方程式을 導出하여 正確診斷率을 알아보았다.

2. 結果

1) 少陰人 集團의 一般의 特性

QSCCⅡ 校訂 少陰尺度 構成에 使用된 少陰人 集團의 人口統計學的 分布는 아래 Table과 같다.

性別에 따른 分布는 男子가 108명으로 32.1%이며 女子가 228명으로 67.9%로 女子가 男子보다 2배 이상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Table 2), 年齡은 17세에서 79세 사이에 분포하며 30代에서 40代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able 3).

Table 2. Distribution of Sex Distinction

Value lable	Frequency	Percent
Male	108a)	32.1
Female	228	67.9
Total	336	100.0

Table 3. Distribution of Age Distinction

Value lable	Frequency	Percent
11-20 years	10a)	3.0
21-30 years	48	14.3
31-40 years	106	31.5
41-50 years	74	22.0
51-60 years	58	17.3
61-70 years	30	8.9
71-80 years	10	3.0
Total	336	100.0

平均 身長은 161.1cm이며 150-159.9cm사이가 가장 많으며, 平均 體重은 54.9kg이며 50-59.9kg 사이가 가장 많다. (Table 4. 5.)

Table 4. Distribution of Body Height(cm)

Value lable	Frequency	Percent
- 149.9 cm	20a)	6.0
150-159.9 cm	152	45.2
160-169.9 cm	90	26.8
170-179.9 cm	60	17.9
180 cm -	12	3.6
No response	2	0.6
Total	336	100.0

Table 5. Distribution of Body Weight(kg)

Value lable	Frequency	Percent
- 39.9 kg	4a)	1.2
40-49.9 kg	82	24.4
50-59.9 kg	168	50.0
60-69.9 kg	62	18.5
70 kg -	18	5.4
No response	2	0.6
Total	336	100.0

2) 少陰人 集團의 QSCC II의 正確判別率

體質醫學科 教授에 의해 少陰人으로 診斷된 사람에 있어서 QSCC II가 少陰人으로 判定한 確率は 55.4%였고, 少陽人과 太陰人 判定은 各各 31.0%와 13.6%였다(Table 6). 이 數値는 金⁷⁾의 論文에서 QSCC II에 의한 少陰人의 正確判別率인 70.8% 보다는 낮은 數値로 本 論文에서의 少陰人 數가 336名이며 金의 論文에서는 50名이다.

Table 6. Probability of 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in Soeumin

Value lable	Frequency	Percent
Soeum	186a)	55.4
Soyang	104	31.0
Taeum	46	13.6
Taeyang	0	0
Total	336	100.0

3) 問項 分析 및 校正 少陰 尺度

(1) 既存 少陰 尺度 問項

金⁷⁾의 論文에서 提示되어 現在 使用되고 있는 少陰 尺度의 問項은 51個 項目이며 그 중 加重點을 賦與한 項目은 21個 項目이다.

(2) 既存 少陰 尺度와 일치하는 問項

問項의 反應頻度率을 比較한 結果로 體質間의 差異가 10%이상 나는 項目 중에서 既存의 少陰 尺度問項과 一致하는 問項은 31개 項目으로 기존 問項의 61%에 해당하며 加重點을 부여한 項目 중에서는 80%에 해당하는 17個의 項目이 一致한다 (Table 7).

그 중 反應頻度率이 가장 높은 項目은 “질문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로 81.1%이며,

反應頻度率의 差異가 가장 큰 項目은 “질문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로 다른 두 體質과 약 25%이상의 差異를 보인다.

Table 7. Contents included the existing Soeum Scales II (N=30)

No.	Contents	
1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少陰>太陰
2	③ 마른 편이다	少陰>少陽>太陰
3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少陰>少陽
4	④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少陰>少陽
5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少陰>太陰
6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少陰>少陽>太陰
7	② 따뜻한 음식	少陰>少陽
8	①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少陰>太陰, 少陽
9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양전하다	少陰>太陰, 少陽
10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少陰>太陰, 少陽
12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少陰>太陰, 少陽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少陰, 太陰>少陽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少陰>少陽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少陰>少陽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少陰>太陰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	少陰>太陰, 少陽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少陰>太陰, 少陽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少陰>太陰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少陰>太陰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少陰>太陰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少陰>太陰
53	인내심이 많다	少陰, 太陰>少陽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	少陰>太陰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少陰, 少陽>太陰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少陰>少陽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少陰>太陰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少陰>太陰, 少陽
11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	少陰>少陽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少陰>太陰, 少陽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少陰>少陽

(3) 校正 少陰 尺度에 추가된 問項

既存 少陰 尺度 問項이 아니었으나 問項의 反應頻度率의 體質間의 差異가 10%이상 나는 項目은 모두 5個로 太陰 尺度와 太陽 尺度가 各各 1項目이며 나머지 3問項은 尺度 問項이 아니다. 이 5 問項은 모두 少陰人과 少陽人을 區別하는데 有意한 問項들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Contents of new Soeum Scales (N=5)

No.	Contents	
15	다음 중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일 처리 또는 생활습관)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少陰>少陽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少陰>少陽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少陰>少陽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少陰>少陽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少陰>少陽

(4) 既存 少陰尺度에서 제외되는 問項

問項의 反應頻度率을 比較하여 既存의 少陰尺度이나 體質間의 差異가 10% 以下로 少陰尺度로서 再考되어야 하는 問項은 모두 20개 問項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Contents excluded the existing Soeum Scales (N=21)

No.	Contents	
7	① 뜨거운 음식	
30	사람을 사귀는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46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가중문항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72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81	모임이 있을 때 평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84	자신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가중문항 편이다	
87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96	말로는 서로 툭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툭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가중문항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가중문항
105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120	평소에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있다	

(5) 校正 少陰尺度의 問項 信賴度

上記 結果를 土臺로 問項의 反應頻度率이 少陰集

團과 다른 體質集團과의 差異가 10%이상인 것을 基準으로 하여 새로운 少陰尺度(이하에서 校正少陰尺度라 名함)을 構成하였다. 이 尺度의 項目數는 35個로 既存의 51個에 比하여 減少하여 既存의 質問 問項이 너무 많았던 點을 修整할 수 있게 되었고, 問項 全體間의 相關係數로 表示되는 問項適格度는 모두 經驗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Number of Items and Reliability Coefficients of revised Soeum Scales

Contents	Item-Total Correlation	
1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0780	
2 ③ 마른 편이다	.2545	
3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1282	
4 ④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2252	
5 ② 팔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2131	
6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2979	
7 ② 따뜻한 음식	.1168	
8 ①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1988	
9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압전하다	.1789	
10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2830	
12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2666	
15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2359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2211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2720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2932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2019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	.2760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3608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2283
50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4370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4439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3958
53	인내심이 많다	.2694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	.3433
6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2340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4301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2896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3321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4370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4165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4768
11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	.3133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3488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2968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2598

(6) 少陰尺度의 信賴度 測定

四象尺度의 內的一致度(internal consistency)는 Cronbach's α 係數로 표현되어진다.

既存의 少陰尺度는 51個 項目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內的一致도는 0.6319이었으나 反應頻度率을 고려하여 새로이 選定된 少陰 尺度는 35個 項目으로 줄어들고 그 內的一致도는 0.8011로 上升된다(Table 11.).

Table 11. Correlations between discriminating variables an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Scale	Number of Item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Existing Soeum scales	51	0.6319
Revised Soeum scales	35	0.8011

보통 信賴도가 0.5 以上이면 信賴性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少陰 尺度는 그 數值가 上升하여 既存의 少陰 尺度보다 各 尺度를 構成하고 있는 內容이 心性 問項과 體格·病症 問項들로 多樣하게 構成되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說明할 수 있다. 이러한 尺度의 調整을 통하여 辨別力을 보다 높일 수 있으며 問項의 數를 調節하여 便利性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었다.

7) 校訂 少陰尺度에 의한 正確判別率

體質診斷을 爲해서 새로 製作된 QSCCII의 少陰 尺度들이 正確判別率을 檢討해 보고, 새로운 少陰 尺度의 QSCCII를 利用하면 專門醫가 少陰人으로 診斷한 總 336名과 얼마나 一致하는지를 알아보기 爲하여 判別 分析를 실시하였다(Table 12). 모든 資料는 分析에 들어가기 前에 判別分析 過程에서 導出된 判別方程式을 適用하였다. 2個의 方程式 모두 Wilks' Lambda, χ^2 (chi-square), 自由度(df)를 考慮한 有意度(Sig)가 모두 0.0001로서 統計的으로 有意性이 認定되는 判別方程式 들이라 할 수 있다.

判別函數와 各 尺度間의 關係를 통해서 各 函數에 크게 寄與하는 尺度가 무엇인지 알아 본 結果는 Table 13에 提示하였다. 이 表를 살펴보면 判別函數 1은 太陰尺度와 높은 相關關係를 보였고 判別函數 2는 少陽尺度, 少陰尺度와 높은 相關 關係를 보였다. 즉 少陽·太陰·少陰 尺度는 集團의 區分에 影響을 미치는 意味있는 變數로 作用하여 QSCCII는 本來의 意圖에 附合되는 尺度間의 區分이 存在함을 알 수 있다.

導出된 判別函數가 少陰 體質을 正確히 判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平均 正確判別率이 64.3%로 나타나 校正 少陰尺度의 統計的 有意性을 인정할 수 있다.

Table 12. Discriminant analysis results of the QSCCII's Sasang constitutional scales

Discriminant Function 1 = 0.487-0.63×SYT+0.248×TET-0.067×SET							
Discriminant Function 2 = -1.187-0.186×SYT-0.116×TET-0.103×SET							
Fcn	Eigenvalue	Wilks' Lambda	Chi-square	df	Sig		
1*	0.426	0.596	390.353	6	0.0000		
2*	0.117	0.850	122.781	2	0.0000		
Actual Group	No. Of Cases	Predicted Group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evaluated at group means		
		Soeum	Taeum	Soyang	GROUP	Func1	Func2
Soeum	336	216 (64.3%)	42 (12.5%)	78 (23.2%)	Soeum In	-0.510	-0.337
Taeum	204	35 (17.2%)	123 (60.3%)	46 (22.5%)	Taeum In	1.052	0.138
Soyang	218	53 (24.3%)	27 (12.4%)	138 (63.3%)	Soyang In	-0.198	-0.648

SYT indicates score of Soyang scale TET indicates score of Taeum scale SET indicates score of Soeum scale

Table 14. Grouping items of revised Soeum Scales

		existing Soeum Scales	Excluded Soeum Scales	New Soeum Scales	Revised Soeum Scales	Total
身體的 要素(7)	體形氣像	6	0	0	6	8
	容貌詞氣	2	0	0	2	
心性的 要素(25)	性質才幹	14	6	1	9	18
	恒心	10	3	2	9	
	心慾	7	7	0	0	
體質證 要素(4)		10	3	1	8	8
動機歪曲問項(3)		2	2	1	1	1
Total		51	21	5	35	

표 13. Correlations between discriminating variables an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Scale	Func1	Func2
Soeum	-0.587	0.679*
Taeum	0.871*	0.196
Soyang	-0.129	0.676*

III. 考 察

四象體質分類檢査(QSCC)Ⅱ는 既存의 肉體의 形態로 주로 區分되었던 體質鑑別에 반하여 精神的, 心理的 要素를 포함하여 臨床的으로 應用이 가능한 客觀的 基準을 마련하고자 제작된 自己報告式 說問檢査로서 현재 臨床에서 體質 鑑別의 基礎的인 資料를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研究에서 全體 758例 및 少陰人 336例의 說問紙를 分析한 特徵 및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四象體質分類檢査(QSCC)Ⅱ 說問問項의 分類 考 察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34)에서는 세 가지 體質診斷方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人物形容을 자세히 살피는 방법으로 이것에는 身體的 要素인 '體形氣像, 容貌詞氣'와 心性的 要素인 '性質才幹, 恒心, 心慾'이 있다. 둘째, 病證을 서로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大病, 重病, 完實無病, 生理的 體質證, 病理的 體質病證'이 이에 해당되며 셋째, '用藥'의 방법이 있으나 이 중 用藥의 방법은 醫師가 직

접 觀察하여야 할 문제로 說問으로 제작하기가 어렵다.

QSCCⅡ에는 身體的 要素(8問項)와 心性的 要素(80問項)가 대부분이며 약간의 病證 問項(24問項)들이 있는데, 動機歪曲 9문항과 함께 총 121問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病證 문항은 많지 않으므로 生理的 證과 病理的 證을 묶어 크게 三大別 할 수 있다.(Table 1)

心性的 要素는 모두 31問項인데 性質才幹 項目은 少陰人에 있어서 身體的 要素는 4問項이 남아 體質 鑑別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문항 2-②, 문항 3-③, 문항 5-③, 문항 6-③은 모두 비교적 낮은 問項適格度를 가져, 體形에 관계된 問項은 體質的인 鑑別을 할 수는 있지만 信賴性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心性的 要素 중 性質才幹 項目은 校正 少陰尺度의 問項適格度가 가장 높은 項目임을 알 수 있으며, 心慾 項目은 問項適格度가 상대적으로 낮아 少陰人에 있어서 體質的인 鑑別을 하기에는 다소 不足하며, 少陰人의 病證 要素는 少陰人을 鑑別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2. 校正 少陰尺度의 提示 考 察

1) 身體的 要素

(1) 體形氣像

體形氣像의 問項에서 질문 1), 2), 5)는 전체적인 體格을 묻는 質問이며, 질문3), 6)은 人體 上下體의 比較를 묻는 質問으로 類似 問項이다.

특히 '질문1)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와 '질문2)

③ 다른 편이다' '질문3)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에서는 少陰人의 反應頻度率이 다른 體質에 비하여 높으나 少陰人의 50%이상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信賴度도 낮은 편이다. 이것은 體格이나 體型의 基準을 提示하지 않아 被檢者마다 다른 基準을 가지고 對答할 수 있으며, 一般的으로 應答者들이 平均의 對答을 하려는 傾向에 의한 것으로 思料된다. 四象辨證內容說問調查紙(I)의 2번 문항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골격이 굵고 살이 썩 편이다 ② 골격이 적고 균형이 잡혀 있다 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④ 키가 크고 몸은 수척한 편이다 ⑤ 기타" 과 같이 問項을 統合하거나 數値화된 여러 가지 指數를 應用할 必要가 있다.

질문 6)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는 反應頻度率이 53.6% 높으며 다른 體質과도 20%이상의 差異를 보이며, 信賴度 또한 높아 少陰人의 鑑別의 의미가 크다고 思料된다.

2) 心性的 要素

(1) 性質材幹

性質材幹에 관한 項目 14個 중 8個에서 少陰人이 10% 이상 應答빈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少陰人 尺度가 아닌 2 問項에서 少陰人이 10% 이상 反應頻度率인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10% 이하로 辨別力이 없는 問項은 性質材幹에서 질문30), 질문37), 질문46), 질문47), 질문65), 질문72)의 6 項目이다.

이 중에서 '질문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가 反應頻度率이 81.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信賴度도 높아서 이 項目으로 代表 項目이 될 만하다.

질문 37) 47)이 두 項目은 다른 體質의 尺度와 共通된 것으로 辨別力이 없어서 項目의 삭제가 가능할 것 같으며 질문 65) 72)는 辨別力은 낮으나 少陰人의 特徵을 나타낸다고 思料되는 바 問項의 調整이 필요하다.

(2) 恒心

恒心에 관한 項目 10個 중 7個에서 少陰人이 10% 이상 反應頻度率인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少陰人 尺度가 아닌 1 問項에서 少陰人이 10% 이상 反應頻度率인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10% 이하로 辨別力이 없는 問項은 恒心에서 질문 49), 질문56), 질문57)의 3 項目이다.

恒心에 관한 項目은 모두 反應頻度率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反應頻度率 또한 아주 큰 項目이 없다.

3) 心慾

心慾에 관한 項目 7個 질문76), 질문77), 질문81), 질문84), 질문95), 질문96), 질문100)의 7 項目 모두 反應頻度率의 차이가 10% 이하로 辨別力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項目들이 否定的이며 反社會的 傾向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問項의 修整을 거쳐 다시 檢證해 볼 必要가 있다.

4) 病證

病證에 관한 項目은 汗에 관한 項目 2個, 喜冷溫에 관한 項目 3個, 消化狀態에 관한 項目 2個, 大便에 관한 項目 1個, 虛勞에 관한 項目 2個로 구성되어 있다. 汗에 관한 項目 1個, 喜冷溫에 관한 項目 3個, 消化狀態에 관한 項目 2個, 虛勞에 관한 項目 1個에서 少陰人이 10% 이상 反應頻度率인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少陰人 尺度가 아닌 虛勞에 관한 1 項目에서 少陰人이 10% 이상 反應頻度率인 높은 것으로 나오고, 10% 이하로 辨別力이 없는 問項은 汗에 관한 項目인 질문120)과 大便에 관한 項目인 질문105), 虛勞에 관한 項目인 질문116) 3 項目이다.

病證에 관한 項目에는 體質 素證의 項目이 2個이며 나머지는 體質 病證에 관한 問項이다. 이들 問項 중 病證에 관한 問項의 反應頻度率이 낮게 나오며, 素證에 관한 項目이 反應頻度率인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病證의 內容의 具體的이며 對象이 患者보다는 健康 檢診을 받으러 온 患者이며, 病證發生의 相對的 頻도가 낮기 때문으로 思料된다. 그래서 病證에 관한 內容을 줄이고 體質 素證에 관한 內容을 追加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3. 少陰人 鑑別이 容易하지 않은 說問에 대한 考察 少陰人 診斷에 有意性이 있다고 판단된 校正 少

陰尺度 35問項을 보면 比較問項들이 있다.(Table 13)(Table 14).

QSCCⅡ가 少陰人을 鑑別할 때, 他 體質과의 鑑別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선 問項 중 少陰人과 다른 體質과는 差異가 있으나 두 體質과 모두 差異 나는 10개의 項目을 除外하고, 少陰人과 少陽人을 區別하는 15개의 問項과 少陰人과 太陰人을 區別하는 10개의 問項만을 選擇하여 體質을 보다 深度있게 鑑別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특히 既存의 尺度가 少陰人을 少陽人으로 判定하는 境遇가 많은데 校正 少陰尺度에 追加된 5項目이 모두 少陰人과 少陽人을 區別하는 問項으로 少陽人으로 잘못 判定하는 경우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한 追加的인 分析 및 다른 體質 問項과의 比較가 修行되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QSCCⅡ에 의한 少陰人 診斷의 妥當性을 調査하기 위해 慶熙大學校 附屬 東西綜合健康診斷센터에 內院한 患者 中 少陰人으로 診斷된 336例와 다른 體質로 診斷된 422例의 體質集團을 對象으로 統計的 分析을 실시하여 少陰尺度의 改善點을 찾아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全體 758名 被檢者의 說問을 對象으로 頻度分析을 실시하여 다른 體質과의 應答頻도가 10%이상 差異를 보여 少陰人 診斷에 有意性이 있다고 判定된 問項은 總 35問項이었다. 既存 少陰尺度와 일치하는 問項은 30問項이었고, 새로운 尺度問項은 5問項이었다.
2. 校正 少陰尺度의 信賴度는 0.8011로 나타나 既存의 少陰尺度의 信賴度 0.6319보다 上升하여 校正 少陰尺度의 問項이 보다 少陰人의 特性을 잘 反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校正 少陰尺度를 利用하여 만든 判別式을 使用하여 少陰集團의 體質을 診斷한 結果인 正確判別率이 64.3%로 나타나 校正 少陰尺度의 有意性이 認定되며, 正確診斷率이 既存 少陰尺度에 보다 약 10%정도 上升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QSCCⅡ의 問項을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才

幹, 恒心, 心慾, 體質素證, 體質病證으로 묶어서 觀察했을 경우에 心慾 問項과 體質病證 問項의 反應頻度率 및 體質辨別力이 떨어지는 것이 알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1. 고병희 외 1인 :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8(1), 1987.
2. 고병희 외 1인 :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6(1), 1985.
3. 고병희 외 2인 : 북미지역주민의 사상체질 분포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1(2) : 119-183, 1999.
4. 고병희 외 7인 :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101-186, 1996.
5. 김달래 :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6(1) : 89-94, 1994.
6. 김선호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 : 61-80, 1993.
7. 김선호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186-246, 1996.
8. 김수범 :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적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9. 김영우 외 1인 :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 설문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11(2) : 151-184, 1999.
10. 김종열 외 2인 :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81-214, 1998.
11. 김창수 : 태음인과 소음인의 두면부의 체질인류학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9(1) : 299-302, 1997.
12. 김태균 외 1인 :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 173-185, 2000.
13. 노정우 외 4인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타당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분석, 사상체질

- 의학회지, 8(2) : 239-253, 1996.
14. 박성식 외 2인 :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 103-118, 1999.
 15. 박은경 외 1인 : 설문지 항목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2(1) : 157-172, 2000.
 16. 송일병 :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12, 1998.
 17. 이문호 외 1인 : 사상체질유형과 체격 및 신체 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1) : 71-86, 1990.
 18. 이수경 외 2인 : 사상의학의 형성과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41-54, 1998.
 19. 이수경 외 3인 :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관한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349-376, 1996.
 20. 이의주 외 2인 :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2) : 89-100, 1995.
 21. 이의주 외 3인 :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2) : 181-220, 1998.
 22. 이의주 외 3인 :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43-160, 1998.
 23. 이정찬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247-294, 1996.
 24. 이정찬 외 3인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 : 81-98, 1993.
 25. 장세규 : 사상체질분류검사 평가방법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6. 조황성 외 7인 :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적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9(2) : 147-162, 1997.
 27. 허만희 외 3인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4(1) : 107-148, 1992.
 28. 허반옥 외 1인 : 조선족 성인 300명에 대한 사상의학적 체질측정, 사상체질의학회지, 6(1) : 55-66, 1994.
 29. 홍석철 외 2인 :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 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61-170, 1998.
 30. 홍석철 외 5인 :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71-180, 1998.
 31. 홍석철 외 7인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01-142, 1998.
 32. 송일병 : 알기쉬운 사상의학, 사상사, 48-65, 1996, 서울.
 33. 안재억 : 의학 보건학 통계분석, 고려정보산업, 2000년, 서울.
 34. 이제마 : 격치고, 태양사, 1985, 서울.
 35.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44, 1992, 서울.
 36.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초고, 도서출판 정담, 1999, 서울.
 3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사상의학, 집문당, 120-124, 1997, 서울.
 38. 한국심리학회 : 심리검사(제작 및 사용지침서), 중앙적성출판사, 33-47, 1998, 서울.